

김영록 지사 “지방 살려야 인구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

경제포럼서 출생기본수당·만원주택 등 분야별 대응책 소개 지방 권한 확보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경제 단체·기관·기업 대표들에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분권을 시행해야 하며,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선제적으로 지방 권한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경제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의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 인구정책을 소개하며 인구 구조 변화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도적 인구 정책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생기

본수당’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의 핵심 인구시책이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만원주택’ 정책,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마을 조성’, 광역형 비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이민 정책, 가입 52만 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등 전남도의 정책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전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원제 도입과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헌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경제포럼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라남도의 저출생과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요되는 만큼,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하늘 아래 황금 옥단 같았나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16일, 영광 묘량면의 도로변에서 농민들이 갓 수확한 벼를 말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6개 도시 청년 예술가들, 광주서 문화·도시재생 실험 성료

광주시 ‘아시아 문화탐험대’ 호응 참여도시 대학 간 교류 추진도 추진

광주시의 2024아시아도시시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 문화탐험대’가 뜨거운 호응 속에 문화·도시재생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탐험대는 지난 4~11일 광주 일원에서 문화 재생 공간 탐방, 세미나, 공공예술 프로젝트, 시민보고회 등 활동을 펼쳤다. 광주, 중국 난양, 태국 치앙마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몽골 울란바토르, 대만 창화 등 6개 도시 청년 예술가 60여명이 참여했다.

아시아문화탐험대는 광주 문화재생공간 탐방, 문화재생 국제협력세미나, 지산2동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 ‘도시樂락 페스티벌&시

민보고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와 도시재생 실험을 진행했다.

지산2동에서 진행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마을 입구의 이정표 ‘화(花)화(花)호호’, 경로당 어르신 녹색집터 앞의 의자 ‘그린스텝(Green step)’, 은행나무와 보리밭 거리의 특색을 더한 벽화 ‘은행 꽃 길’ 등 지산2동 주민 편의를 위한 설치작품들이 대표적이다.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광주와 지산2동 마을 특색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고, 청년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공유 의미를 더했다.

‘도시樂락 페스티벌’에서도 지역 주민과 아시아청년예술가들이 함께 각국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술, 전통 인형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아시아도시시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도시들은 문화교류는 물론 교육 등 다른 분야로 교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해 공공예술 프로젝트 현지 실행지였던 중국 난양시의 난양사범대는 이번 교류에서 광주대를 찾아 학술·교육 협력을 논의했고, 태국 치앙마이를 비롯한 다른 참가 도시들도 대학 간 지속적 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자카르타, 창화 등도 광주의 도시재생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풍경을 활력을 더하고,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새로운 협력의 창조물이 남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가 각 나라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부마와 오월 함께”...광주시, 부산·마산과 민주역사도시 연대

광주시는 16일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광주는 부산, 마산과 함께 민주역사도시로서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 광주는 부마와 함께 하겠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한다”며 “부마 민주항쟁 정신은 5·18 민주

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으로 계승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시는 또 “5·18 정신 등 민주화운동 역사를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의무,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용기 내 일어주신 부산, 마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

고, “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은 80년 5월 5·18민주화운동의 서곡이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어깨 걸고 나아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8월 부산을 찾아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으며, 대구 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등 민주연대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무안국제공항, 일본·동남아 노선 확대

11월부터 8개국 16개 노선 운항

무안국제공항이 탑승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노선을 늘려가면서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전북, 경남에까지 공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말까지 이용객 3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11월부터는 8개국 16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공항 이용객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절기 운항계획 중인 국가별 노선은 ▲일본 오사카, 나리타,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중국 장가계, 항저우 ▲베트남 나트랑, 다낭, 달랏, 하노이, 푸꾸옥 ▲필리핀 마닐라 등이다. 항공사별로 운항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지난해 동

절기보다 2개국 4개 노선이 늘어난 규모다.

12월부터는 국제선 일본 오사카, 나리타, 대만 타이베이, 국내선 제주노선은 매일 정기편 운항을 계획하고 있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의 항공교통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89만 명이 이용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인다. 코로나로 잠시 정체기를 겪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올해부터 항공사 맞춤형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지원을 운항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기편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25만명,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30만명으로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하는 등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목표 이용객은 50만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환식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